

‘야권 통합 길을 묻다’ 연쇄 인터뷰 — 에필로그

91년 야권통합 주역 김정길 전 장관

“야당, 명분만 내세울 뿐 절박함 없어”



시민단체 대표성도 모호하다. 이해찬 총리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야당이라고 있지만, 이 또한 국민과 전국 시민단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1991년 9월 민주당 야권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은 4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야권통합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각 야당이 명분만 내세울 뿐 모두 절박함이 없고, 적극적인 통합 추진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59명 대 5명 5:5 통합

DJ 지도력·통큰 양보 때문

합당으로 야권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을 때여서 야권통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그래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야권통합에 적극적이었다.

민주당이 수권 기구 만들어야 통합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다. 그것은 김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력과 통큰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권 통합 논의가 어떻게 보느냐.

국민이 한나라에 등돌린 건 야당 잘해서 그런게 아니다

보정당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 통합 열의가 있다면 정책과 노선이 달라도 충분한 논의와 협상, 양보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통합 정당 내에서 정파를 인정하면서 연립정부로 가는 통합 방식도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투자유치 지원

‘지역발전주간’ 행사 7일부터 DJ센터서 열려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 16개 시·도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11 지역발전주간’행사가 오는 7일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DJ센터)에서 열린다.

또 광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 성공 사례에 대해 각 지자체가 교류하고 상호 토론하는 지역발전성공사례 발표대회와 외국인 투자기금 및 투자자를 초청해 16개 광역 지자체의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지역 발전 투자설명회도 마련됐다.

“BBK 김정준 송환 미뤄달라”

MB진영, 2007년 대선 前 美에 요청

위키리크스, 美 국무부 외교 전문 공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앞둔 지난 2007년 10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진영이 ‘BBK 추가조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미뤄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관을 다시 만난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이 이미 2005년 12월 김씨의 송환을 승인했고, 김씨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송환을 연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국 측의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김씨를 송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경찰 35명 연행... 野, 강력 규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2일 새벽 공권력이 전격 투입됐다. 경찰과 해군은 구럼비해안 등 기지 부지 안에 있던 농성자들을 모두 밖으로 몰아낸 뒤 울타리를 설치해 부지 내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지난 6월말 공사 중단 이후 2개월여 만에 사실상 공사에 다시 착수했다.

30명, 여성 5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제주도의회의원과 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 등도 현장을 찾아 경찰력 투입을 규탄하고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a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stinations like Bangkok, Europe, and Hawaii.